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전남 꺼안은 이재명 대통령, 헌법 전문 수록 다짐

### 옛 전남도청 활성화·유공자 직권등록 등 약속

### “오월 정신 바탕으로 균형발전 역사 써내려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옛 전남도청 활성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제도 도입 등을 약속하며, 광주·전남 시도민을 꺼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광주·전남의 숙원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공감대였다.

이 대통령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오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면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우의 시민 항쟁이었던 옛 전남도청에 대해서는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청 벽면 곳곳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들이 그날의 참혹함과 시

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해주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오월의 광주가 세계인들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 총탄에 쓰러진 고(故)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있지만, 등록 신청을 대신할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민주유공자

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민주화열사를 예우했다.

이울러 이 대통령은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잔인한 폭압 속에서도 80년 5월 광주는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었고 금남로에는 사랑과 연대의 물결이 출렁였다”며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존과 배려, 평화의 광장에서 광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빛나는 5·18 정신이 역사의 굵이 굵이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

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 앞서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신국경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이 다짐의 선언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된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오월정신 놓고 공방

### 정청래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아...내란 세력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은 여당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용납 않을 것”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

다만 5·18 정신을 두고는 양당 대표가 서로 내 닷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 기념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비효소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기념식 장소 안으로 차례대로 입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보다 약 10분 가량 늦게 현장에 도착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별도 통로로 바로 내부로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내란당 아니냐”, “내란 정당은 해

산하라”고 외치는 등 경찰에 항의하는 소동이 일었다.

지지자들끼리 충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 중년 남성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내란 정당”이라고 반발하자 다른 20대 남성이 “공소 취소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왜 그러느냐”라고 맞받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헌법 수록을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시민께 죄송하다”며 “윤 여개인을 외치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다시 세우려는 내란 옹호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내란도 현재진행형”이라며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며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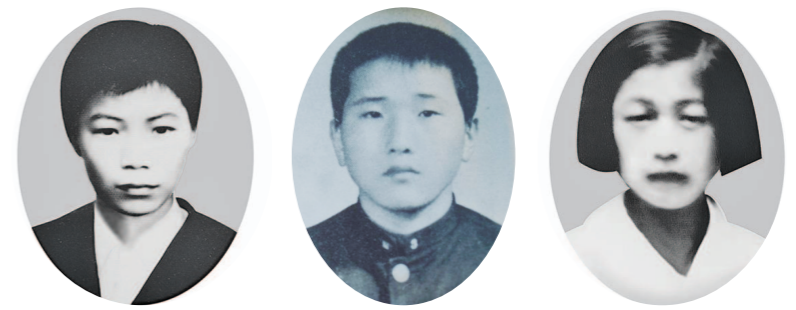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일제침에 다 다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등도 참석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취임 첫 참배’李대통령 찾은 5·18 묘역은?

### 월급도 못 받은 소년공 박인배 41년 만에 신원 되찾은 양창근 최후의 희생자 여중생 김명숙



박인배

양창근

김명숙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짙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45년 전 총탄에 스러진 어린 학생과 소년공들의 이름이 다시 불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소년공 출신 희생자고 박인배군(당시 18세)과 41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 양창근군, 항쟁 마지막 희생자로 기록된 고 김명숙양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박인배군은 7년간 형편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서 자기 기술을 배운 뒤 광주의 한 가구공장에 취직해 생활했다.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했던 그는 주말이면 집에 들러 어머니를 챙길 만큼 효심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박군은 첫 월급을 받기로 했던 1980년 5월24일을 끝내 맞지 못했

다. 계엄군 집단 발포가 벌어진 5월21일 동구 금남로5가 옛 한일은행 인근에서 총탄에 희생됐다. 박군의 묘소는 민주묘지 1-30번에 안장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1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 양창근군(당시 15세)의 묘소도 참배했다.

1980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양군은 5월19일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 총격으로 희생됐다. 이후 망월동 구묘역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됐던 양군은 2021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됐다.

양군은 제20사단 61연대의 광주-나주 간 도로 봉쇄 작전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묘소는 국립

5·18민주묘지 1-38번 묘역에 조성돼 있다.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찾은 묘소는 항쟁의 마지막 희생자로 기록된 고 김명숙양(당시 14세)이다.

당시 서광중학교 학생이었던 김양은 1980년 5월27일 친구에게 책을 빌려다 주다가 끼여들던 중 전남대 정문 인근에서 계엄군 총격을 받았다. 도청 진압 작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 민간인 수색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다.

총탄을 피해 개천 아래로 몸을 숨겼던 김양은 상황이 끝난 줄 알고 밖으로 나오다 다시 발포된 총탄에 쓰러졌다. 김양의 묘소는 민주묘지 2-28번에 안장돼 있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

## 5·18 오후 5시18분 ‘민주의종’ 타종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광주·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18일 오후 5시18분 5·18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을 거행했다.

타종식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원도 경계부지사, 체은지 광주

시의회 부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승복 광주시 부교육감, 황성한 전남도 부교육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5·18기관과 단체장 등이 함께 했다.

올해 타종식은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이 하나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연대의

역사를 계승하고,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기원하는 소통과 통합의 장으로 기획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타종자로 나서,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로 뭉치는 대통합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아 오후 5시18분 정각에 맞춰 ‘민주의 종’을 총 33회 타종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